성 고정관념 없애려 여성 옷 입는 남성

▲ 여성 옷을 입고 생활하는 마크 브라이언. 사진=인스타그램(markbryan911)

성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4년 전부터 치마를 입기 시작한 60대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독일에 사는 미국인 마크 브라이언(61)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직장은 물론 집에서도 꽉 끼는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는다." 고 밝혔다.

로봇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마크는 "대학에 다닐 때 처음 하이힐을 신어 봤는데 당시 여자친구가 같이 춤추기 전에 하이힐을 같이 신어 보자고 했었다." 고 회상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러 그는 4년 전부터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자신이 치마와 하이힐을 착용하고 있는 일상의 모습을 사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는 '포르쉐와 미녀들을 사랑하고 하이힐과 치마를 일상에 접목하는 이성애자이자 행복한 유부남' 이라고 쓰여 있다.

마크는 공개적으로 치마를 입기 시작한 뒤 몇몇 사람이 자신에게 성적 취향에 대해 질문했을 때가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당신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면서 "다른 때에는 난 그냥 이성애자." 라고 답한다.

그는 아들과 두 딸에게 처음 여자 옷을 입는 것에 대해 털어놨던 순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그는 "아빠가 치마와 하이힐을 착용해도 게이가 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고 말했었다.

마크는 "외출 중에 가끔 모르는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기도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 면서 "일부 남자들은 내가 평범한 대화가 가능한 보통 남자라는 사실에 놀라워하기도 한다." 고 밝혔다.

투표 안 하면 '죽은 사람'

지난 18일 대통령선거를 치른 볼리비아에서 선거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투표 다음날인 19일 볼리비아 각지의 주민센터는 정당한 사유로 투표하지 못 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한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가장 흔한 변명은 와병 또는 여행 중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유가 인정받기 위해선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외유 중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증명서를 받으려다 거부를 당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이처럼 사유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얻기 위해 발버둥치는 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다. 대다수 남미국가처럼 볼리비아는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죽은 국민' 취급을 당한다.

각종 행정수속을 할 수 없게 돼 주민증이나 여권의 발급이나 갱신이 불가능해지는 건 물론 전기요금마저 납부할 수 없게 된다. 증명서를 받기 위해선 212볼리비아노(약 32달러)를 발급비로 내야 한다. 볼리비아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다.

▲ 증명서를 받기 위해 북새통을 이룬 볼리비아의 한 주민센터. 사진=유튜브 캡처(AGENCIA EFE)

억울한 사람들도 있다. 주민센터를 찾은 한 남성은 대통령선거 투표 당일 투표소를 찾았지만 유권자명부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 그는 혹시 모르니 다른 투표소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다른 두 곳의 투표소에도 가보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유권자 명부를 찾지 못 했다. 볼리비아에선 유권자 명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월세 없는 카페 운영자 모집합니다"

스페인 사라고자 지방의 작은 마을 올베스가 월세 없이 공짜로 카페를 운영할 사장님을 초빙한다고 공모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공지된 조건은 파격이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에겐 숙소가 제공되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마을이 일정 부분 분담한다. 카페의 월세는 없다. 마을은 왜 이런 조건으로 카페 사장님을 모시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일까?

올베스엔 카페가 단 한 곳뿐이었다. 마을회관 역할까지 하던 소중한 곳이었지만 주인이 사업을 접고 외지로 나가면서 올베스는 '카페 없는 마을' 이 됐다. 이에 올베스는 카페를 되살릴 방법을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마을 주민 중 카페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고민 끝에 올베스는 '카페 없는 마을은 생명 없는 마을' 이라는 캐치프레이즈까지 내걸고 카페 사장님을 영입하기로 했다. 각종 공과금까지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올베스의 인구는 통틀어 고작 120여 명뿐이어서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출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 올베스 카페 외부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UR- BAN)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올베스 카페를 운영해보겠다고 공모에 지원한 사람은 약 200여 명에 이른다. 지원자 중에는 외국인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더 장